

과학환상그림책

싸우는 지혜동산

제 1 부
사 고

[redacted]

조선출판물수출입사
주체106(2017)

이 땅이 아무리 넓다고 하여도
과학 과학의 세계보다 넓지 못하리
너도나도 우리모두 지혜합쳐
과학의 세계 넓혀나가자
우리 동산 무릉도원으로 꾸려가자

이 세상 아무리 희한한것 많다해도
과학 과학의 세계보다 희한하지 못하리
너도나도 우리모두 지혜합쳐
과학의 세계 넓혀나가자
우리 동산 무릉도원으로 꾸려가자

[reda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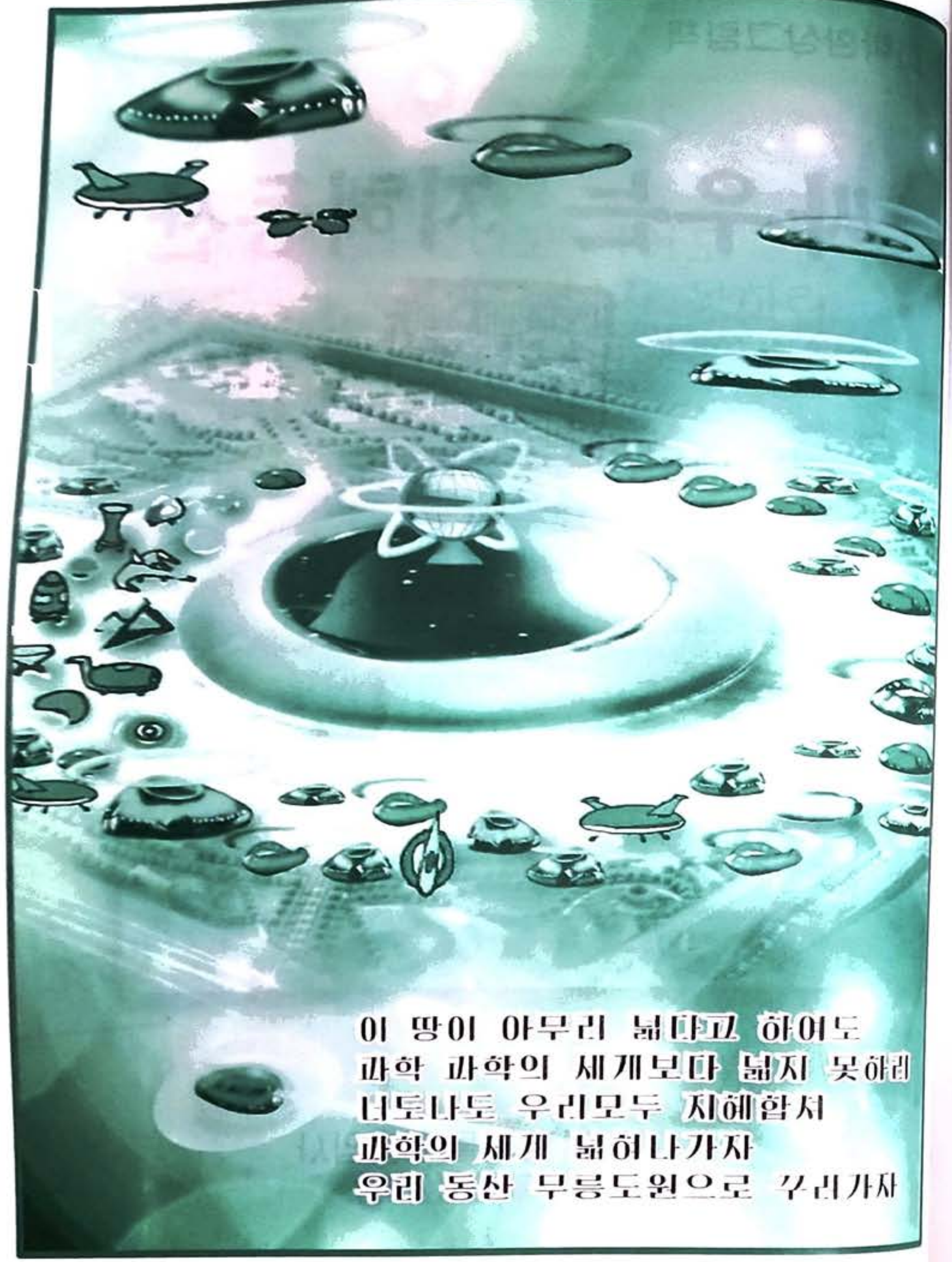
과학환상그림책

싸우는 지혜동산

[redacted]



조선출판물수출입사
주체106(2017)


이 땅이 아무리 넓다고 하여도
과학 과학의 세계보다 넓지 못하리
너도나도 우리모두 지혜합쳐
과학의 세계 넓혀나가자
우리 동산 무릉도원으로 꾸려가자


지혜동산과학기술통보사


…지금 지구의 여러 대륙의 수많은 동산들에서 과학기술발전속도는 대단히 빠릅니다.


몇년전까지만 하여도 39초만에 1건의 과학기술발명이 나오던것이 오늘은 1초동안에 여러건의 과학기술발명이 나오고있습니다.
악어들의 소굴


이러한 현실로부터 과학기술의 더 높고 더 빠른 속도를 보장하며 여러 동산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정보자료와 제품의 소개 및 교환을 위하여 우리 지혜동산에 현대적인 이 과학기술통보사를 내오게 되였습니다.
짜락 짜락
여보게, 믹스! 자네는 왜 박수를 치지 않나?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한 저들에게…
대장님. 난 좀더 있다 박수를 치렵니다. 저들을 저세상으로 다 보낸 다음에 말입니다.
자네는 마음이 곱지 못하구만.
곱지 못한 마음과 사나운 이발로 물어뜯는 기질은 대장님을 비롯한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것이 아닙니까.


흥. 자네 말을 아주 잘하누만. 지금은 말보다 실천이 중요한 때야.
저들을 처리할 무슨 묘안이라도 있나?
지금 생각중입니다.


고슴도치네 동산
우리 과학기술통보사는 여러 동산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정보자료들을 받아 분석하고 기억시켜 보관하며 인터네트와 레이자빛화면전송으로 소개도 하고 연구 및 보급도 할수 있는 모든 현대적설비들이 다 갖추어져있습니다.


야, 정말 훌륭한데. 저런 통보사가 일을 시작하면 우리도 새로운 정보자료들을 더 빨리 받아보게 되겠군.
글쎄말이야.
우리 통보사는 로보트들이 관리운영하게 됩니다.



야, 로보트들이 정말 귀엽게들 생겼는데…
빨리 통보사를 구경했으면 좋겠다.
너무 보채지 말어. 다 순서가 있겠지 뭐.



여러분, 새로운 과학기술정보자료들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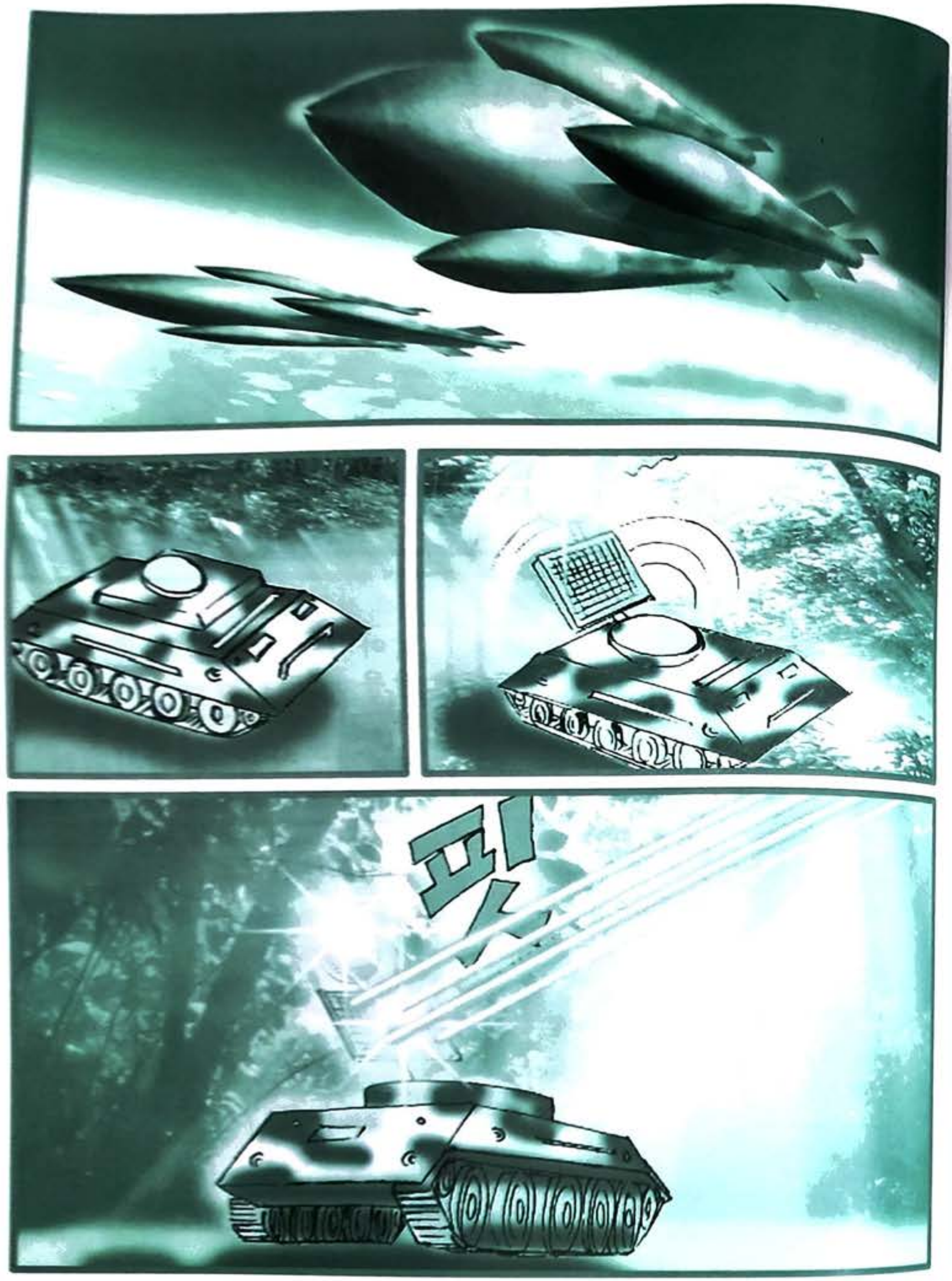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통보사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촬영기자 곰과 방송원인 야웅이입니다.
짜락
짜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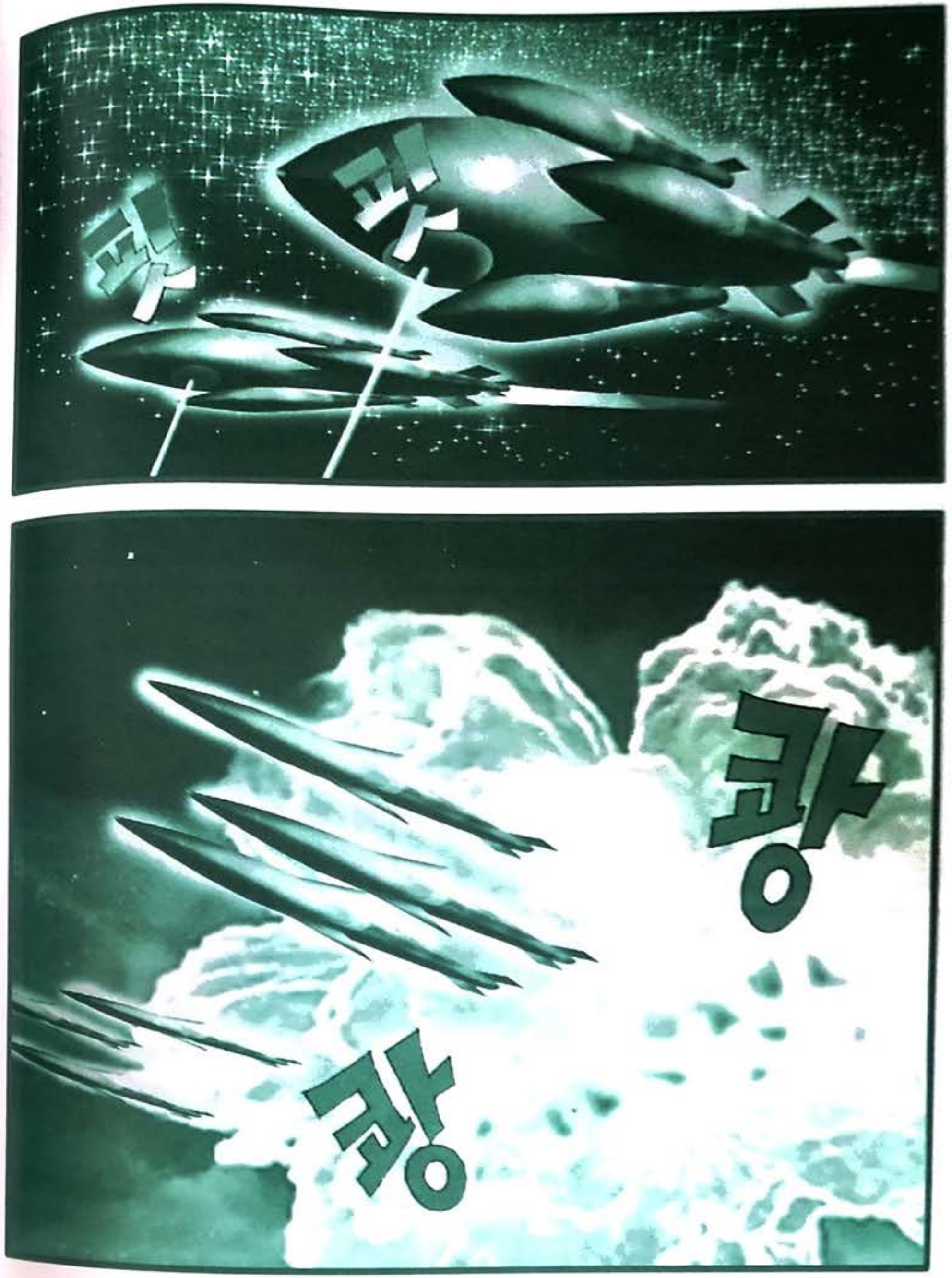


여러분들이 우리 지혜동산의 기자들을 언제나 반갑게 맞이해주리라 믿습니다.


기자선생님들, 우리한테 먼저 와주세요. 우리 동산에는 여러가지 흥미있는 과학기술소식들이 많답니다.
아니, 우리한테 먼저 와주시오. 우리 하마들은 몸은 이렇게 둔해도 훌륭한 과학기술발명을 많이 하였소. 지금 우리는 바다우에 새로운 큰 발전소를 건설하였는데…
기자선생, 우리 고슴도치들은 몸집은 작지만 아주 큰 발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족제비놈들을 비롯한 이 땅의 원쑤놈들을 단매에 족쳐버릴 훌륭한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한테 꼭 먼저 와주십시오.


우리 부대장동무입니다. 우리도 지혜동산동무들을 한번 초청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빠르릉
대장동무, 지혜동산으로 날아가던 두기의 로케트탄을 소멸하였습니다. 아마 지혜동산과학기술통보사 개업식을 파탄시키려는 족제비놈들의 소행같습니다. 그 화면자료들을 보여주겠습니다.


핏


핏
핏
쾅
쾅

[redacted]






악어들의 소굴
대장님! 족제비들이 지혜동산에 로케트를 발사했다가 고슴도치들한테 요격당했답니다.
머저리같은것들, 지금이 어느 때게 아직도 구식로케트를 쏘고있어? 파리가 날아가는것도 포착하고 소멸하는 이 최첨단시대에, 으응… 그래 자네는 언제부터 생각한다던 그 묘안을 아직도 생각해내지 못했나?


다 생각해냈습니다.
응, 그래? 좋아! 그럼 실수가 없이 잘해보라구.
예, 알겠습니다.


지혜동산과학기술통보사
우리 동산에 먼저 와야 해.
아니야. 우리 동산에 먼저 와야 해.
그만들 해라. 이렇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모임이 끝난 다음…
…초청장들을 써놓고 가면 기자선생님들이 찾아오지 않을라구. 자, 이젠 통보사구경이나 하자꾸나.


옳아, 빨리 구경하자.
자, 그럼 이 로보트들의 안내를 받으며 통보사를 돌아 보십시오.


통보사가 정말 훌륭하구나.

[redacted]


아니? 무슨 초청장들이 이리도 많아.
에－《통보사를 꾸리느라 수고한 동무들을 우리 식당에 초청합니다. 우리가 만든 신기한 료리를 당신들에게 차려드리고싶습니다.》
아니, 무슨 신기한 료리를 우리에게 대접한다는거야?

[reda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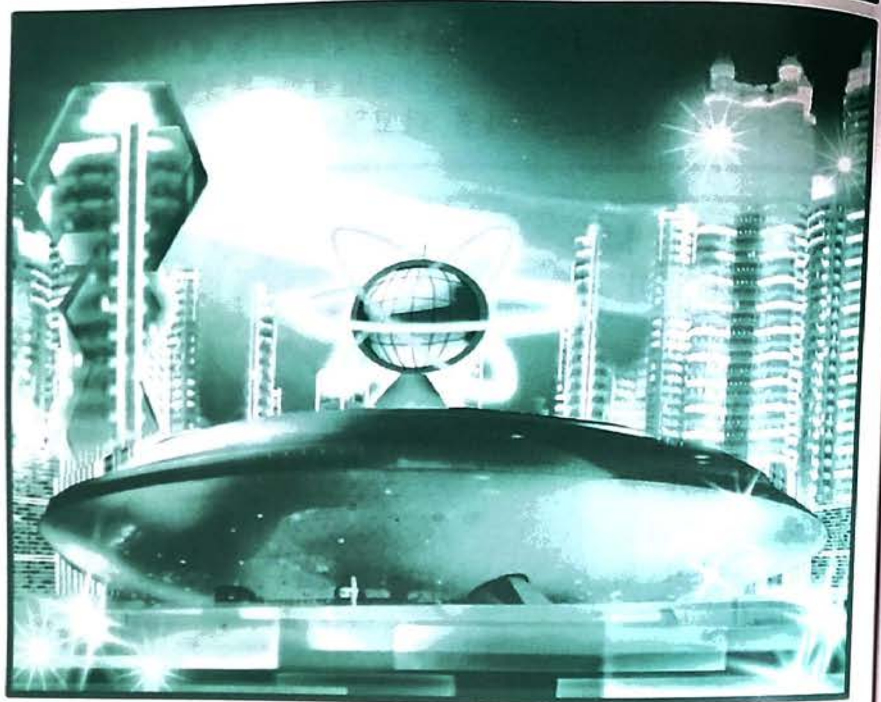
[reda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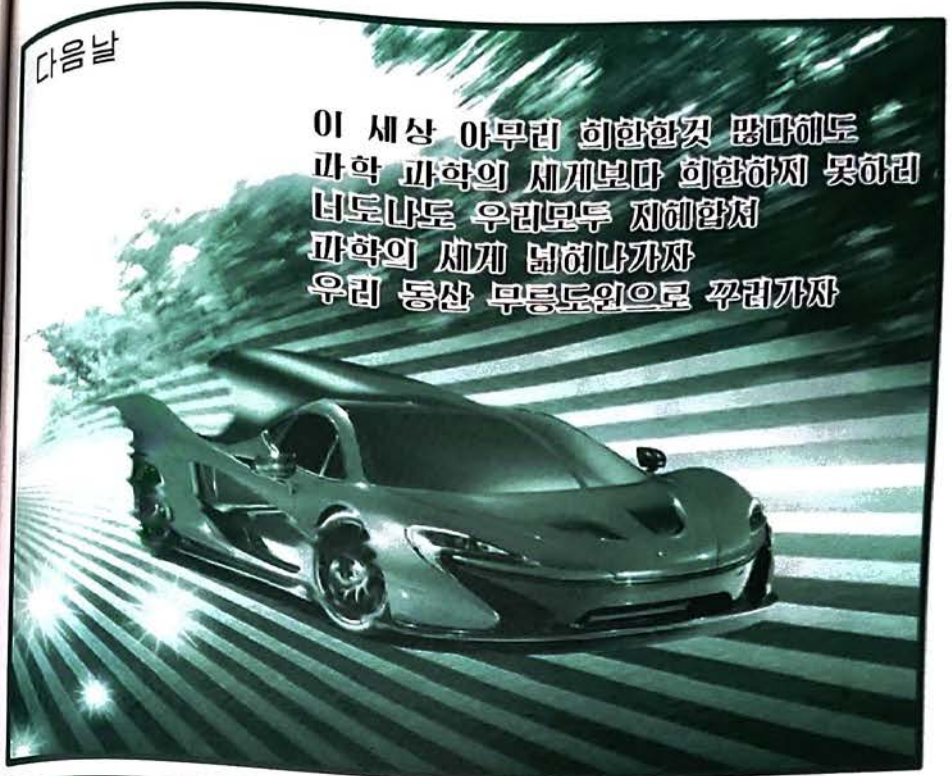

멍멍아. 곰의 말대로 먼저 하마들이 건설한 발전소부터 가보는것이 어떻니? 준공식날자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좋아.
하마들이 있는 머나먼 바다까지 가려면 취재용비행기를 타고 떠나는것이 좋겠구나.

[reda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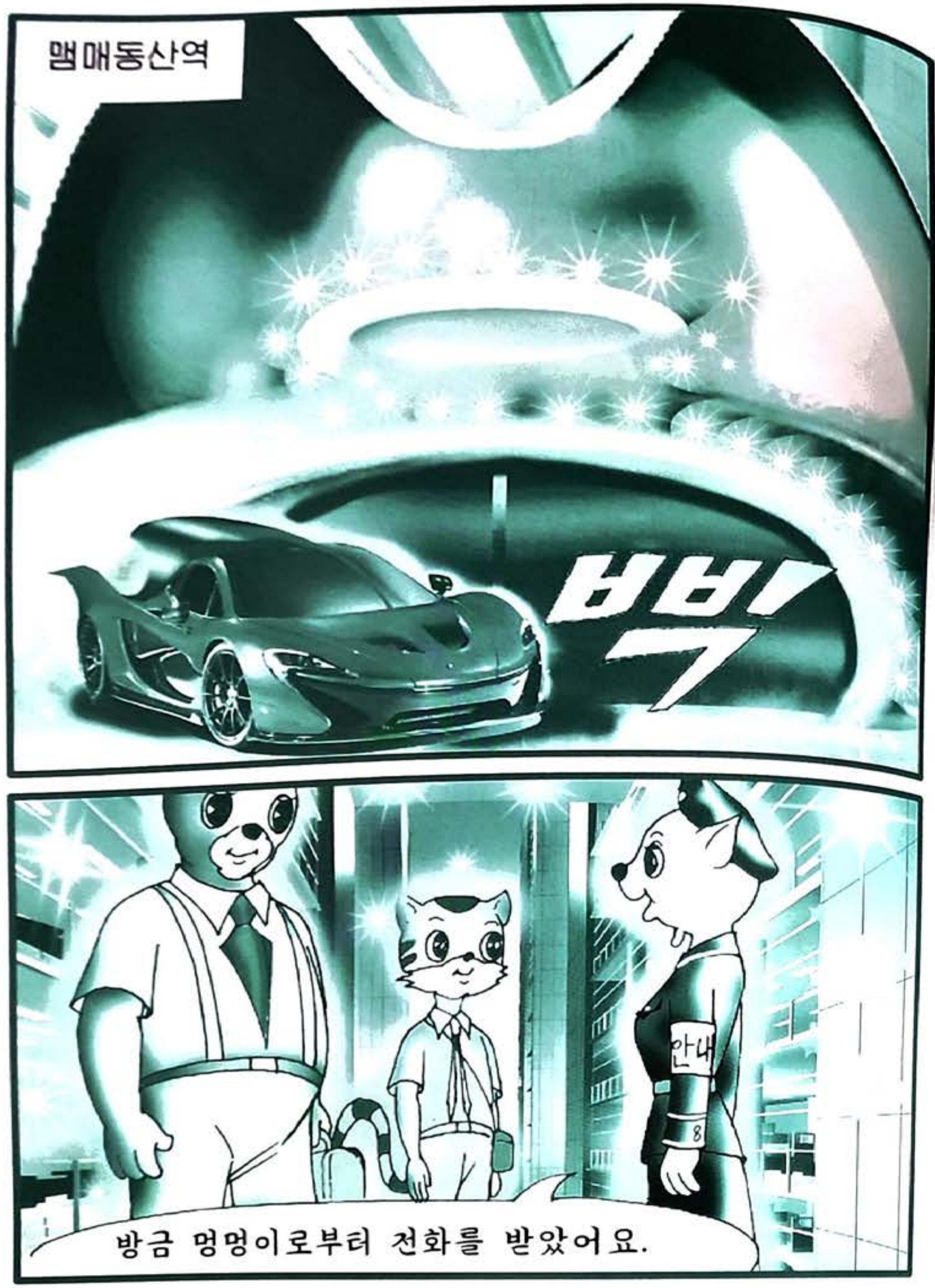

그러지 말고 아름다운 산천구경도 할겸 렬차를 타고 가자꾸나. 이번에 염소형님들이 특급행렬차를 만들었다는데 그 렬차를 타고말이야.
응,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먼저 떠나. 나는 새로 개업한 통보사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검열하고 뒤따라 가겠다.


응. 그래.
먼길인데 주의해라.
응, 알겠어. 걱정말어. 빨리 따라와.




다음날
이 세상 아무리 희한한것 많다해도
과학 과학의 세계보다 희한하지 못하리
너도나도 우리모두 지혜합쳐
과학의 세계 넓혀나가자
우리 동산 무릉도원으로 꾸려가자




맴매동산역
안내
방금 멍멍이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이 렬차들이 우리가 이번에 새로 만든 특급행렬차 《음파 33》호와 《빛 1》호렬차들입니다. 이 《음파 33》호렬차는 초전도재료를 써서 만든 자기부상렬차로서 시속 600km로 달리고 저 《빛 1》호렬차는 1 000km이상으로 달리는 특급행렬차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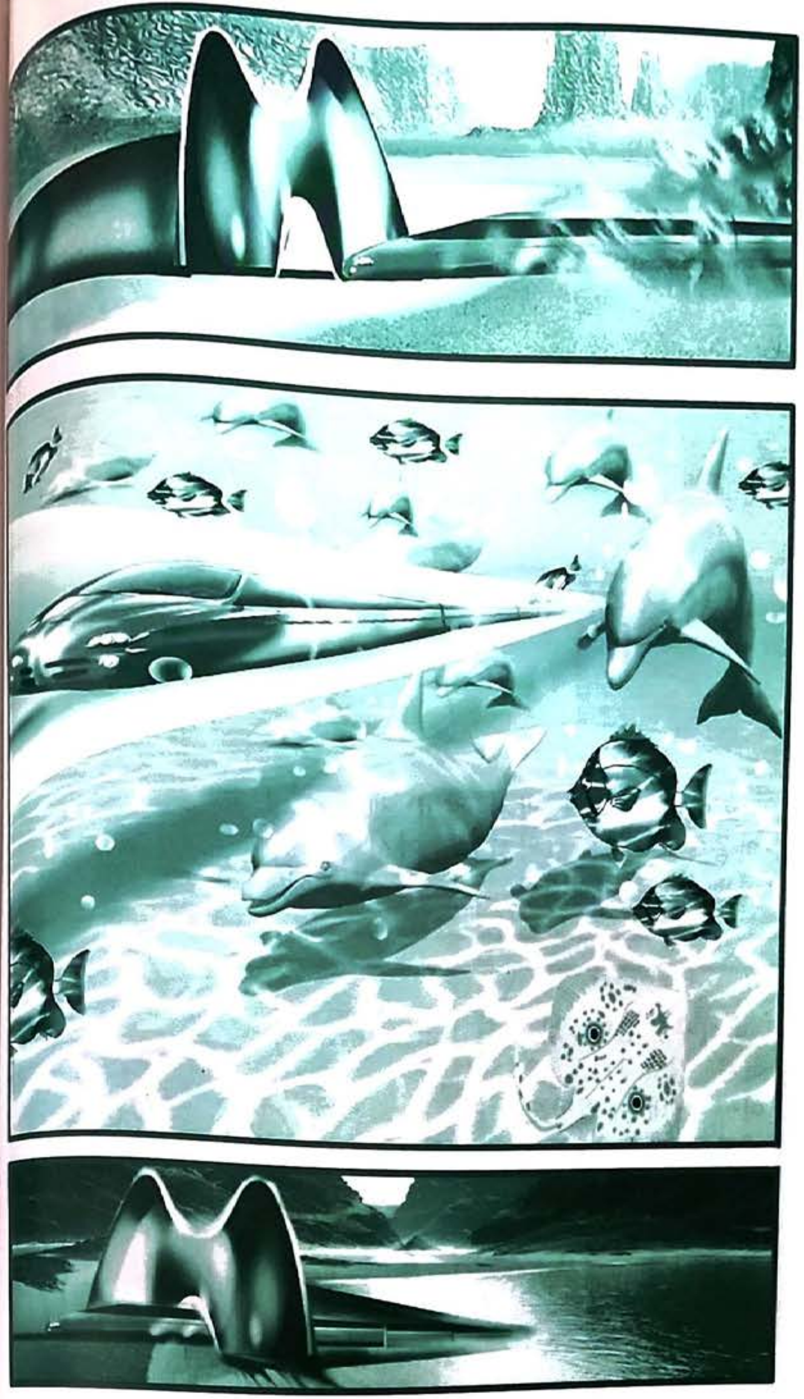
[redacted]





[redacted]


여보. 우리한테 귀염둥이가 태여날것 같아요.
그렇소? 정말 기쁜 일이구만. 그럼 몸조리를 잘해야겠소. 고놈의 귀염둥이가 나를 닮았을가, 당신을 닮았을가? 정말 보고싶은걸.




안내원체네! 이거야 좁아서 앉아있겠나.
호호호. 안내를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타니 그렇지요. 어서 특별칸으로 가십시다.
아이구, 고맙수다. 이젠 살았구나. 에이… 체네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정말 곱구만.… 나한테도 체네같은 딸이 있는데 그앤 그렇지 못해.


야, 멋있구나. 곰아, 촬영기로 저 기묘한 바위산들을 찍어라.
응, 그래.

[redacted]

[redacted]





[redacted]


지금 렬차는 해안선을 따라 600㎞/h속도로 달리고있습니다. 다음 멎을 역은 28호역입니다. 내리실 손님들은 준비해주십시오.
얘, 곰아, 목적지에 다 왔다. 빨리 내릴 준비를 하자.
벌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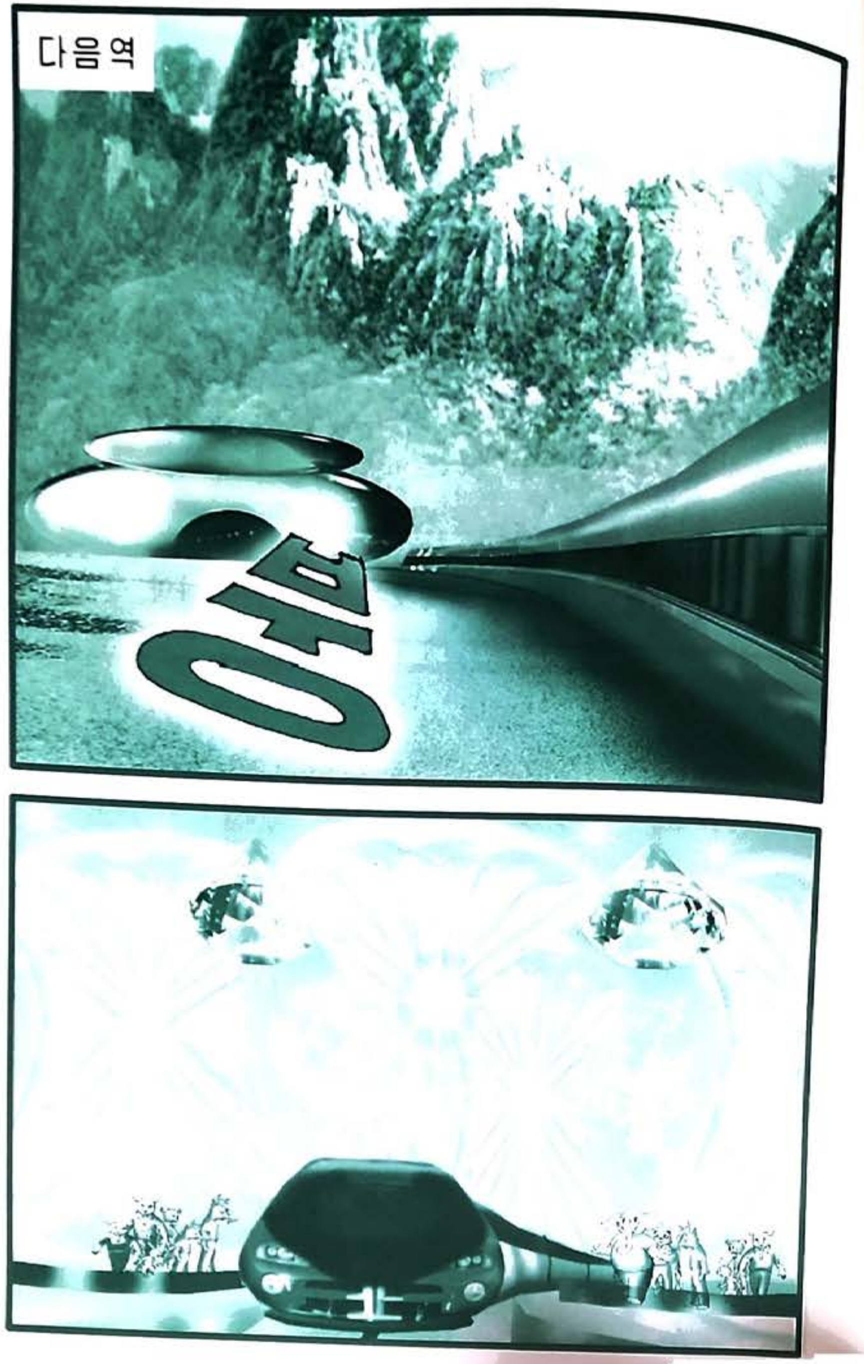

아니? 28호역이 다 왔는데 왜 이렇게 속도를 내는걸가?
이상한데?…
휙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왜 렬차가 그냥 지나갈가?

[redacted]





[reda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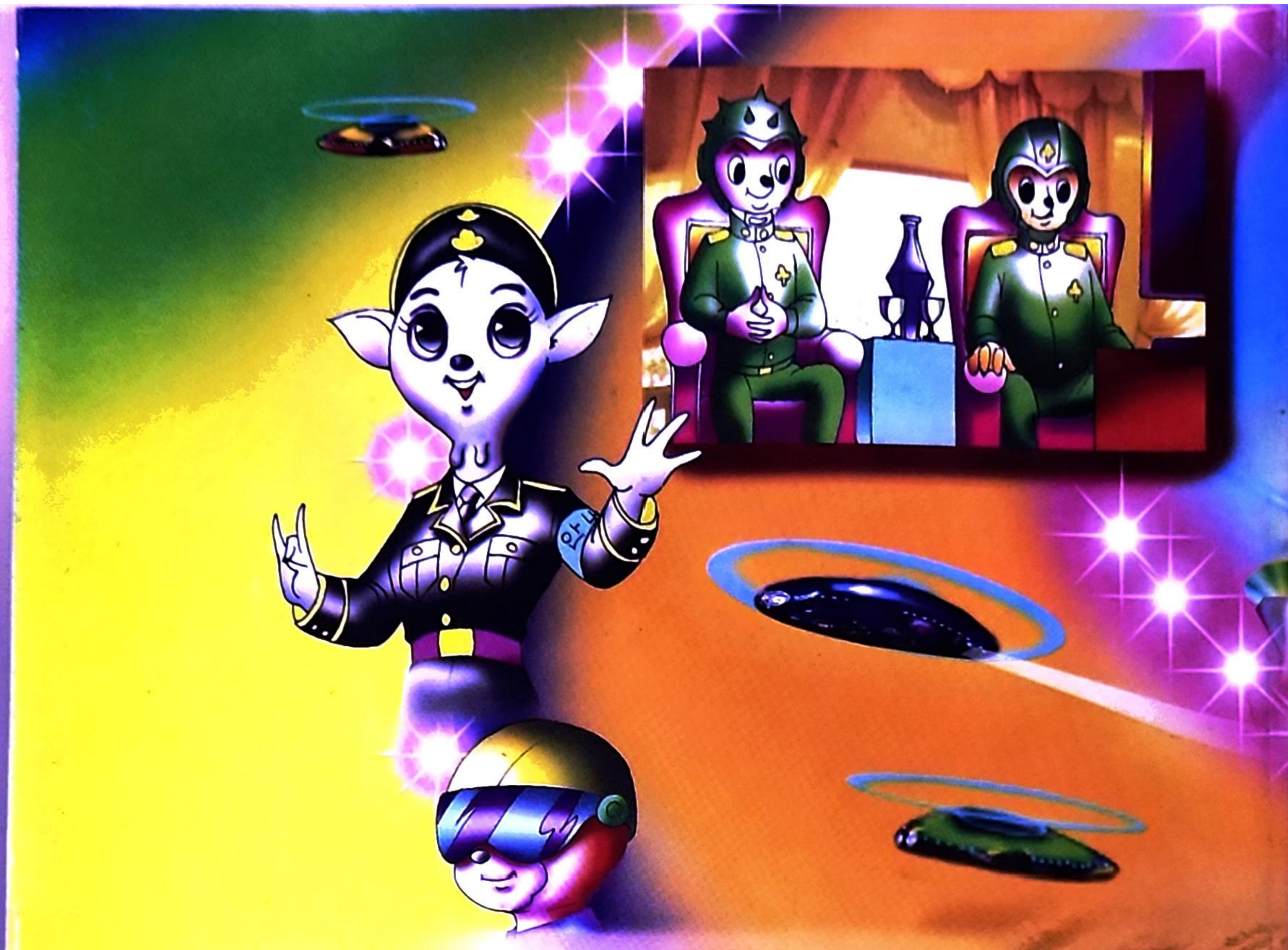

다음역
웅


아니, 렬차가 왜 서지 않을가?
글쎄, 이상한데…





[redacted]



과학환상그림책

싸우는 지혜동산

제 1 부

사고

글	한진명	그 림	함순옥
편 집	리해연, 리은정	교 정	로명애

내 곳 조선출판물수출입사

인쇄소 정평인쇄소

인 쇄 주체106(2017)년 2월 8일

발 행 주체106(2017)년 2월 18일

ㄱ-66627

DPR Korea

ISBN 978-9946-29-470-4

ISBN 978-9946-29-470-4

9 789946 294704